

惡阻症에 活用되는 半夏의 用·不用說에 關한 文獻的 考察

鄭 鎮 鴻·柳 同 烈*

I. 緒 論

惡阻란 妊娠期中에 胸悶 不舒하고 惡心 嘔吐하며 飲食 냄새를 싫어하고 食入即吐하며 頭重 眩暈 多睡少起 등의 症狀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6,19,23,37)} 「子病」「病兒」「阻病」「病食」「妊娠嘔吐」라고도 하였다.^{10,28,30,32)}

惡阻는 早期妊娠中毒症의 하나로 因胎而致母病의 基本 病症이라 할 수 있으며 病勢가 輕한 境遇에는 治療를 하지 않아도 一定期間이 經過한 後에는 自然히 消失되므로 特別한 藥物 治療를 하지 않아도 心身을 安靜하고 通便을 調節하고 身餌療法을 行하는 것으로 充分하다. 그러나 頑固한 嘔吐 등 惡阻症이 점점 더 甚해지면 胎兒 및 母體에 影響을 미치므로 이것은 適切한 治療를 하여야 하는데 妊娠 期間中の 疾病 治療 原則은 疾病治療와 더불어 胎兒에 損傷을 입히지 않아야 하니 藥物 療法에 있어서 峻下藥, 滑利藥, 行血藥, 破血藥, 耗氣藥, 散氣藥等 一切 有毒 藥物은 모두 慎用하거나 禁用하여야 한다.^{19,30,34,37)} 만일 그렇지 않으면 津液을 消耗시키고 氣血이 損傷이 되어 胎氣가 害를 입어 墮胎가 된다^{34,37)} 하였다. 半夏 역시 妊娠 禁忌藥으로 西³⁵⁾는 動胎의 性味가 있기에 輕히 使用하지 말라 하였으나 百病良方²⁹⁾에서는 姜半夏를 使用하면 아무런 害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內經⁴⁴⁾에서는 「有故無殞 亦無殞也」라고 하여 病이 있으면 그 病이 藥을 받아 들이니 使用하여도 無防하다라고 하였다.

이에 本人은 妊娠 禁忌藥이면서 惡阻症에 使用되는 半夏의 用·不用說에 關하여 여러 文獻을 調査한 結果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婦人科教室

Ⅱ. 資料調查 및 研究方法

1. 資料調查

韓醫學 歷他 文獻 中 古代로부터 最近에 刊行된 52種의 書籍에서 惡阻와 妊娠 禁忌藥에 關한 部分을 研究 對象으로 삼았다.

2. 研究方法

- 1) 諸文獻中 惡阻에 半夏를 使用한 諸家의 說을 比較하였다.
- 2) 諸文獻中 妊娠禁忌藥을 論한 部分을 調査하였다.
- 3) 半夏를 惡阻에 使用한 例中 修治에 關하여 比較하였다.
- 4) 惡阻症에 使用된 處方中 半夏를 使用한 例에 對하여 調査하였다.

Ⅲ. 本 論

1. 婦科病中醫治療法¹⁾

着重安胎止嘔 方中半夏爲止嘔要藥 因性能動胎 多不敢用 不用即不能 收止嘔之效 經云…「有故無殞」有此症即可用此藥 如嘔時急 非半夏不可 每逢此症 除稟賦特弱者 一般均用此方 一二劑吐即止 不效者少 因此墮胎者從來沒有

2. 沈氏女科輯要⁵⁾

惡阻謂嘔吐 惡心 頭眩 惡食 擇食是也

3. 妊娠識要¹²⁾

現在我們所用半夏 已是用姜制過 沒有生用的 也就是“無害”的了…半夏對惡阻的嘔惡 痰多症象

是有其優良的效果 可以證明他有碍胎的副作用

4. 胎產心法¹³⁾

輕者不須服藥 乃常病也 重者須少藥調之 宜用加味參橘飲 考之古人有用 半夏茯苓湯 茯苓丸 專治惡阻 又有用白朮散 人參丁香散 人參橘皮湯 醒脾飲 其中不用半夏 恐胎初結 半夏性能動胎 慮其辛燥易散 但惡阻又非半夏不止 須姜汁炒 以制其毒

5. 醫學心悟¹⁴⁾

其半夏雖爲妊中禁藥 然痰氣阻塞中脘 陰陽拂逆 非此不治 以姜湯泡七次 炒透用之 即無礙也

6. 醫方一盤珠¹⁵⁾

今人以半夏有動胎之性 鮮有用之 予治惡阻 屢用半夏未嘗動胎 蓋有病則病受 無病則胎受也

7. 中醫歷代醫論選⁶⁾

胎前之病 如惡阻 胞阻 胎漏 墮胎等症是也 產後之病 如血塊 血暈等證是也 婦科書中已詳 可毋備述 而其最要述者 惟胎前 產後用藥宜慎 凡治前之病 必須保護其胎 古人雖有“有故無殞 無殞也 大積大聚 其可犯也 衰其大半而止”

8. 〈醫宗金鑑·婦科心法要訣〉釋¹⁷⁾

胎前病治療的原則 除辨症施治外 應盡量避免用碍胎藥 在必不得已時 方以“有故無殞 亦無殞也”的治則來用藥

9. 萬病醫藥顧問¹⁸⁾

輕者過期 自然勿藥而愈 重者須以藥治之

10. 中醫治療婦女病¹⁹⁾

在治病中要注意安胎 應補腎固胎 培脾益血 凡峻下，滑利，行血，破血耗氣，散氣 及有毒藥物要

慎用或禁用 務宜對症下藥 方爲有效

11. 校註婦人良方²¹⁾

蓋半夏乃健脾氣化痰滯之主藥也 脾胃虛弱而嘔吐 或痰涎壅滯 飲食少思 胎不安 必用茯苓半夏湯 倍加白朮 然半夏 白朮 茯苓 陳皮 砂仁 善能安胎氣 健脾胃 予常用驗矣

12. 濟陰綱目²⁰⁾

大全云 妊娠稟受怯弱…千金方以半夏茯苓湯茯苓丸 專治阻病 然此二藥 比來少有服者 以半夏有動胎之性 蓋胎初結 慮其易散 不可不謹也 張仲景傷寒論 有用黃龍湯者 小柴胡湯中去半夏是也 此蓋爲妊娠而設焉 王子亨則有白朮散 局方則有人蔘丁香散 楊振則有人蔘橘皮湯 齊士明則有醒脾飲 皆不用半夏 用之多效…薛氏云 前證若中脘停痰 二陳藥加枳殼…若脾胃虛弱 嘔吐不食 用半夏茯苓湯 蓋半夏乃健脾氣化痰滯之主藥也 脾胃虛弱而嘔吐 或痰涎壅滯 飲食少思 胎不安 必用半夏茯苓湯 倍加白朮 然半夏 白朮 茯苓 陳皮 砂仁 善能安胎氣 健脾胃 予常用之驗

13. 萬病回春²²⁾

半夏 姜湯泡 香油炒過 不傷胎氣

14. 傅青主女科評註¹⁴⁾

妊娠期用藥尤須小心 凡妨胎禁忌方藥 均宜慎用 不可輕投 以免病未 去而胎先堅 雖經云 “有故無殞” 但究應以慎重爲佳 或在必須用時 亦只宜中病即止 不易多服 亦即經謂 “衰其大半而止 過者死”

15. 赤水玄珠全集²³⁾

薛氏曰 脾胃虛弱 嘔吐不食 用茯苓半夏湯 蓋半夏乃健脾氣化痰滯之主藥也 痰涎壅滯 飲食少思 胎氣不安爲必用之藥 須倍加白朮 然半夏 白朮 茯苓 陳皮 砂仁 善能安胎氣 健脾胃也 予嘗用之驗

16. 婦女五期保健知識²⁵⁾

妊娠40天左右約有半數婦女出現食慾不振，胃納減退，惡心嘔吐，流口水，擇食，嗜酸食等 早期

妊娠反應 一般在清晨空腹時較爲明顯 稱爲“晨吐”對工作和身體影響不大 不需特殊治療 至妊娠3個月後多能自然消失

17. 增補漢方臨床四十年¹⁾

大全方에는 半夏가 動胎시킨다 하여 禁用으로 되어 있으나 仲景方에는 胎中에 半夏를 썼으니 惡阻症에 半夏姜汁炒한 것을 쓰기로 되어 있다.

18. 女科臨證經驗集要²⁶⁾

妊娠의 藥物禁忌: 妊娠禁忌藥可分爲兩類 一類是比較劇烈 對孕婦及胎兒都有妨碍 必須禁用的 包括毒藥 瀉藥 大熱藥 破血藥在內 如芒硝, 牽牛, 大黃, 烏豆, 牛膝, 桃仁, 紅花, 三陵, 蠻虫, 水蛭, 虻虫, 大戟, 芫花, 商陸, 麝香等 一類是比較稍有妨害 必須慎用的 包括辛溫香竅藥 消導藥 利尿藥 如肉桂, 厚朴, 半夏, 南星, 山查, 瞿麥, 冬葵子, 車前子等

19. 巢氏諸病源候總論⁴⁷⁾

惡阻病者 心中潰悶 頭眩 四肢煩疼 懈惰不欲執作 惡聞食氣 欲噉鹹酸果實 多睡少起 世云 惡食又云惡字是也

20. 中醫症狀鑒別診斷學²⁸⁾

妊娠嘔吐 是指妊娠期 惡心嘔吐 惡聞食氣 食入即吐 或吐不能食而言 一般見于妊娠早期 輕者往往至妊娠 二, 三月後 自然消失 重者頻頻嘔吐 或不食亦吐 可持續到妊娠後期 嘔吐之物 多爲食物痰涎 或爲 清水 酸水 黃綠苦水 甚則混血 如同醬色 嚴重者 可危及胎兒與孕婦本症〈諸病源候論〉謂之“惡阻病”〈產寶〉稱爲“子病”〈太平聖惠方〉稱之“妊娠阻病”〈本草綱目〉稱爲“妊娠惡阻”〈坤元是寶〉則稱“病食”俗稱“病兒”

21. 〈產鑿〉注釋³²⁾

妊娠惡阻病 產寶謂之 子病 巢氏病源謂之 惡阻 謂婦人有孕惡心 阻其飲食也

22. 百病良方²²⁾

有不少孕婦在妊娠 5~6週至三個月之間選段時間里 有輕度惡心 嘔吐 厭食 偏食等現象 稱為妊娠反應 不算病態 但有少數孕婦 惡心 嘔吐 症狀一開始就嚴重 或逐漸加重 以致不能進食 影響身體健康 這就是病態了…半夏本為妊娠禁忌藥 但治妊娠嘔吐則例外 實踐證明 薑半夏對孕婦及胎兒毫無損害

23. 中醫婦科學講義³⁰⁾

妊娠期中由于生理上有特殊改變 較平時容易發生疾病 所以必須注意平時的預防發病後的治療 以免影響孕婦的 健康和胎兒的發育…妊娠病的治療原則是治病與安胎并舉…使用藥物 應注意 妊娠禁藥 凡峻下, 滑利, 行血, 破血, 耗氣, 散氣及一切有毒的藥品 都要慎重使用或禁用 但在病情需要的情況下 亦可適當選用 所謂“有故無殞 亦無殞也” 惟須注意嚴格採握劑量 “衰其大半而止” 以免傷胎…妊娠二 三月 惡心嘔吐 頭重眩暈 心中煩悶 惡聞食氣或 食入即吐 稱謂“惡阻” 古人也有叫“子病” “病兒” “食病” “阻病”的

24. 女科經論³¹⁾

陳良甫曰：〈千金方〉有半夏茯苓湯 茯苓丸 專治惡阻 此二方比來少有服者 以半夏能動胎 胎初結慮其辛燥易散故也 須薑汁炒以制毒 凡惡阻 非半夏不能止 是有故無殞也

婁全善曰：〈大全方〉謂半夏動胎不用 今觀仲景用人蔘半夏乾薑丸 羅謙甫用半夏茯苓湯 朱丹溪用二陳加減 并治胎前惡阻痰逆嘔吐 心煩頭眩惡食 俱效 獨不知此乎 予治惡阻 用之未嘗動胎 正經云 有故無殞是也 薛立齋曰 半夏乃健脾氣 化痰滯主藥 脾胃虛弱嘔吐 或痰涎壅滯 飲食少 胎不安 必用半夏茯苓湯 倍加白朮 安胎健脾 予嘗用驗也

25. 婦產科學³⁴⁾

妊娠期中有于生理上有特殊改變 較平時容易發生疾病 所以必須注意平時的預防和發病後的治療 以免影響孕婦的健康和胎兒的發育……對胎前病的治療都必須注意 安胎而不碍胎 故凡峻下, 滑利, 行血, 破血, 耗氣, 散氣及一切有毒藥品都須慎用或禁用 否則易耗津液 傷氣血 損胎氣…妊娠病的治療原則：用藥以治病和安胎并舉

26. 萬氏婦人科³⁵⁾

輕者則不服藥無妨 乃常病也 重者須藥調之 恐傷胎氣 專主行痰 以二陳湯爲主 但半夏有動胎之性 不可輕用 肥人專主治痰 半夏茯苓湯主之 即二陳湯加砂仁也

27. 類證治裁³⁶⁾

千金用半夏茯苓湯及茯苓丸 今人以半夏 動胎鮮用 通用白朮湯 二香散 竹茹湯 人蔘丁香散 縮砂散 然半夏 實未動胎也

28. 漢醫學辭典⁶⁾

胸悶不舒하고 惡心嘔吐하며 飲食냄새를 싫어하고 食入即吐하며 頭重目眩等이다. 古代에는 「子病」「病兒」「阻病」 등으로 稱하였다.

29. 中醫學問答³⁷⁾

妊娠期間 母體要發生廣泛的生理變化 這些變化對於健康的婦女雖然 不會產生不良的影響 若是孕婦身體較弱 或這些變化超過了一定限度 就會有病理情況發生 若情況嚴重 還可危及母親與胎兒的健康與生命因此 爲了使孕婦在妊娠期間身體健康 保證分娩的安全 減少流產 早產死產和新生兒死亡 保護產褥期母親及新生兒的健康 孕婦應當注意保健…婦女在妊娠期間 往往由于疾病的影響 使胎孕不安 所以妊娠病的治療 應以治病安胎并舉 一方面治療疾病, 一方面保護胎兒 這是治療妊娠病的總則…妊娠期中 由于有胎 因此用藥應當慎重 一般來設 藥性劇烈 可影響孕母和胎兒安全的藥物 必須禁用 其中包括毒藥 瀉藥 大熱藥 破血藥 耗氣藥等 如水銀 砒研 芒硝 巴豆 牽牛子 大黃 藜蘆 烏豆 大戟 芫花 商陸 麝香, 乾漆 茜根, 牛膝 桃仁 紅花 蠶虫, 水蛭 虻虫, 斑蝥等都 能破血耗氣 損傷胎元 甚至引起墮胎…也須謹慎使用 其中包括辛溫香竄藥 消導藥 利尿藥 如肉桂, 厚朴, 天南星, 山查, 瞿麥, 冬葵子, 車前子等

30. 中藥大辭典⁴⁶⁾

性味：辛，溫，有毒…功用主治：燥濕化痰，降逆止嘔，消痞散結，治濕痰冷飲，嘔吐，反胃，咳嗽喘痰多，胸膈脹滿，痰厥頭痛，頭暈不眠，外消癰腫

31.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⁴⁴⁾

黃帝問曰 婦人重身 毒之何如 岐伯曰 有故無殞 亦無殞也 帝曰 願聞其故 何謂也 岐伯曰 大積大聚 其可犯也 衰其大半而止 過者死

32. 申氏本草學⁸⁾

孕婦가半夏를 忌하는 것은 그 津液을 燥함이다. 그리고 少陽人 體質에 있어서는 반드시 落胎하니 注意를 要한다. 그러나 妊娠嘔吐不止에 禁忌藥이라 하여 此藥을 用하지 않는 것은 錯誤이다. 무릇 妊娠은 天賦의 生理的 機能이다. 仲景이 人蔘半夏丸을 用하여 妊娠嘔吐不止를 治하였으니 이것은 이런 病症이 있으면 이런 藥을 用하고 禁忌들 不拘한 것이다. 內經에 有故無殞은 이런것을 指한 것이다. 만일 小心投藥하려면 半夏를 數次湯泡하여 用하는 것도 一方法이다.

33. 原色本草維新⁹⁾

性味 ; 辛 · 溫 · 有毒 · 妊娠嘔吐의 境遇에는 本品에 陳皮 · 竹茹 · 砂仁 등의 藥物을 配合하여 應用할 수 있으므로 證에 따른 配合도 달리하여 어떠한 嘔吐證이라 하더라도 本品을 應用할 수 있다.

34. 中藥藥理與應用⁴¹⁾

味辛, 性溫, 有毒. 能降逆止嘔 燥 '化痰 消痞散結. 主治咳嗽氣逆 痰涎壅滯 胸脘痞悶 脹滿作痛和 癩瘰癧疽...生半夏必須煎服 半夏煎服并無墮胎之虞

35. 藥性歌括四百味百話解⁴²⁾

半夏 味辛, 性溫, 有燥濕化痰, 健脾和胃, 降逆止嘔的作用. 治因濕痰多引起的頭痛, 咳嗽, 或因痰水停留而出現的胸脘脹滿, 不思飲食, 嘔吐等症...古籍記載半夏爲妊娠所禁用 但從古今臨床證明 用治妊娠嘔吐 不但未見明顯毒副反應 而且止嘔效果肯定

36. 東醫寶鑑⁵⁾

大千方論 半夏動胎而不用 仲景方 皆用半夏 豈不知此而用乎予 治阻病 果用半夏 薑製炒黃用之

未嘗動胎 經云 有故無殞是也

37. 實用中醫婦科方藥學⁴⁰⁾

降衝之主藥生赭石，半夏，竹茹與清熱涼血藥，滋陰清熱藥，健脾和胃藥，斂肝清熱藥，祛濕化痰藥相配。

臨床使用降衝劑應注意

- 1) 降衝藥多爲妊娠慎用之品 要嚴格掌握劑量 “中病即止”
- 2) 凡降氣瀉下之藥 均有助於降衝 臨床可適當選用

38. 針灸治療女病³⁹⁾

妊娠常見的疾病有：惡阻，妊娠腹痛，胎漏，胎動不安，墮胎，小產，滑胎胎萎不長，胎死不下，子腫，子煩，子懸，子眩，子嗽，子淋，妊娠小便不通，難產 妊娠 期間 凡峻下，滑利，祛瘀，破血，耗氣，散氣以及一切 有毒藥品 都應慎用或禁用 但在病情需要的情況下 亦可適當選用 所謂 “有故無殞 亦無殞也” 惟須注意嚴格掌握劑量 “衰其大半而止” 以免傷胎。

39. 漢方婦入科學⁴⁾

〈禁忌藥名〉斑猫，水蛭，虻虫，烏豆，附子，天雄，野葛，牛黃，麝香，水銀，巴豆，甘遂，大戟，芫花，蛇蛻，吳蛤，牛膝，黎蘆，苡仁，雄黃，雌黃，牙硝，芒硝，牡丹皮，蜥蜴，代赭石，三陵，荻朮，槐角，牽牛，皂角，桃仁，茅根，礞砂，乾漆，瞿麥，蟹爪，蝟皮，半夏，南星，通草，葵子，犀角，大蒜等 妊娠惡阻는 妊娠中毒症의 前期現象으로 所謂 因胎而致母病의 基本病證이라 할 수 있다……症勢가 輕한 境遇에는 治療를 하지 않아도 一定期間이 經過한 後면 自然 消失된다. 그러나 頑固한 嘔吐 등으로 高度의 營養障礙를 일으키면 이것은 妊娠惡阻라 하여 適切한 治療를 하여야 한다.

40. 漢藥臨床應用⁷⁾

性味 味辛，性溫，有毒…妊婦에게는 쓰지 않는 것이 좋은데 狀態에 適合할 때는 쓸 수도 있다. 但法半夏를 써야 하며 紫萸括樓皮를 代用해도 좋다.

41. 東醫婦人科學³⁷⁾

惡阻症으로 移行하기 전에는 藥物治療를 하지 않아도 心身の 安靜, 通便의 調節, 食餌療法 등을 잘 하면 된다.

42. 中醫婦科學³⁸⁾

妊娠常見的疾病有 惡阻, 妊娠腹痛, 胎漏, 胎動不安, 墮胎, 小產, 滑胎, 胎萎不長, 胎死不下, 子腫, 子煩, 子懸, 子癰, 子眩, 子痞, 子嗽, 子淋, 妊娠小便不通, 難產等

43. 病症診治³⁹⁾

- (1) 患者의 精神의 素因에 注意해야 한다.
- (2) 胃氣를 調和시키고 降逆止嘔한다.
- (3) 水分과 鹽基의 平衡을 調整한다.
- (4) 鎮靜 安定劑等을 投與한다.
- (5) 비타민 B₁ · B₆ · C를 補充해준다.

44. 六科準繩⁴⁵⁾

〈大全〉妊娠稟受怯弱…千金方以半夏茯苓湯茯苓丸 專治阻病 然此二藥 比來少有服者 以半夏有動胎之性 蓋胎初結 慮其易散 此不可不謹也 張仲景傷寒論 有用黃龍湯者 小柴胡湯中去半夏是也 此蓋 爲妊娠而設焉 王子亨則有白朮散 局方則入藜丁香散 楊振則有人 蔘橘皮湯 齊士明則有醒脾飲 皆不用半夏 用之多效…〈薛〉前證若中脘停痰二陳藥加枳殼…若脾胃虛弱 嘔吐不食 用半夏茯苓湯 蓋半夏乃健脾氣化痰滯之主藥也 脾胃虛弱而嘔吐 或痰涎壅滯 飲食少思 胎不安 必用茯苓半夏湯 倍加白朮 然半夏 白朮 茯苓 陳皮 砂仁 善能安胎氣 健脾胃 予嘗用之驗矣

IV. 考 察

妊娠期間中에는 母體에 많은 生理 變化가 있다. 이러한 變化는 平常時보다도 疾病의 發生을

容易하게 하는데 健康한 婦女에게는 出産에 아무런 影響을 미치지 않지만 妊娠의 身體가 比較的 弱하거나 生理 變化가 지나치면 一定한 病的 狀態가 發生하며 이러한 狀態가 重하게 되면 母體뿐만 아니라 胎兒의 健康과 生命에 危險을 超來할 수가 있기에 妊娠期間中에 健康한 身體를 維持하여 完全한 分娩이 되도록 하여 流産이나 早産, 死産 또는 新生兒 死亡을 줄여야 한다.^{30,34,37)}

妊娠中에 나타나는 疾患은 患阻, 胎動, 胎漏, 妊娠腹痛, 墮胎, 小産, 滑胎, 胎萎不長, 胎死不下, 子煩, 子腫, 子癰, 子暈, 子嗽, 子瘡, 子淋, 難産, 妊娠小便不通 등이 있으며^{38,39)} 단일 病的인 狀態가 되었으며 疾病의 治療뿐만 아니라 胎兒를 保護하여야 하는 것이 妊娠病의 治療 原則이다.^{19,30,34,37)}

그러므로 妊娠中에는 鍼灸와 外貼膏藥을 慎重하게 使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用藥에 있어서도 藥性이 劇然藥 卽 毒藥, 瀉藥, 大熱藥, 破血藥, 耗氣藥 例를 들면 水銀, 芒硝, 巴豆, 大黃, 牽牛子, 烏豆, 水蛭, 桃仁, 紅花, 牛膝, 三陵, 砒石, 黎蘆, 大戟, 莞花, 商陸, 麝香, 乾漆, 茅根, 蜜虫, 斑猫 등은 能히 破血 耗氣하여 損傷 胎元하고 甚하면 墮胎에 이르게 하니 반드시 禁用하여야 하며 그 이외에도 辛溫香竅藥이나 消導藥, 利尿藥 例를 들면 肉桂, 夏朴, 天南星, 半夏, 山查, 瞿麥, 冬葵子, 車前子 등은 妊娠에 障礙가 될 수 있기에 慎用하여야 한다.^{4,26,37)}

惡阻는 妊娠 5~6週부터 發生하여 보통 妊娠 3個月後까지 持續되며 輕한 사람은 不服藥하여도 되나 重한 사람은 母體 뿐만 아니라 胎兒에도 損傷을 입히므로 適切한 治療를 하여야 한다.^{3,18,25,26,28)} 惡阻의 原因은 脾胃虛弱, 肝經鬱熱, 痰濕阻滯이며 治法은 降逆止嘔, 健脾胃, 抑肝和胃, 化痰順氣이며 治方으로는 保生湯, 香砂六君子湯, 二陳湯, 半夏茯苓湯, 順肝益氣湯, 蘇葉黃連湯, 黃連溫膽湯 등이 있으며^{10,33~36)} 그 中에는 妊娠禁忌藥인 半夏를 使用한 處方이 여러 개 있다.

半夏의 性味는 辛·溫·有毒이고 主治症은 降逆止嘔, 燥濕去痰, 消痞散結이니 濕痰으로 인한 頭痛, 咳嗽나 痰水停留로 因한 胸膈脹滿, 不思飲食, 嘔吐等症에 使用되어 진다.^{7,9,41,42,46)} 그러나 半夏의 使用時에는 有毒하므로 外用으로는 生用하나 內服으로는 泡劑하여 使用한다.⁹⁾ 단일 生半夏가 必要할 때에는 生薑을 多量 加하여 毒性을 弱화시켜야 하며 特히 妊娠婦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으나 狀態에 適合할 때에는 薑半夏(法半夏)를 使用한다⁷⁾고 하였고 中藥藥理與應用⁴¹⁾에서는 生半夏는 반드시 煎服하여야 하니 半夏를 煎服하면 墮胎의 憂慮가 없기에 服用하는데 아무런 問題가 없다고 하였고 薛²²⁾도 半夏薑湯泡 香油炒過 不傷其胎하였다. 閻¹³⁾은 惡阻는 半夏가 아니면 그치지 아니하니 모름지기 薑汁炒하여 그 毒을 除한 然後에 使用한다고 하였고 程¹⁴⁾은 半夏가 비록 妊娠禁忌藥이나 痰氣가 中脘에 阻塞되거나 陰陽이 拂逆될 때에는 半夏가 아니면 治療할 수 없으니 薑湯泡七次하고 炒用하면 아무런 障礙가 없다고 하였으며 妊娠識要¹²⁾에서도 惡阻의 嘔惡이나 痰多症狀에 對하여 薑半夏를 使用하니 아무런 副作用이 없다고 하였으니 修治를 하여 半夏를 使用하면 아무런 問題가 없음을 알 수가 있다.

申⁶⁾은 妊娠嘔吐不止에 禁忌藥이라 하여 이 藥을 用하지 않는 것은 錯誤라 하였으며 다만 半夏를 忌하는 것은 그 津液을 燥함이니 이런 病症이 있으면 이런 藥을 用하여야 하는데 小心投藥하려면 半夏를 數次湯泡하여 使用하는 것도 一方法이라 하였는데 다른 學者들과는 달리 少陽人體質에 있어서는 반드시 落胎를 한다 하여 藥性보다는 體質으로 半夏의 使用을 區別한 점이 特異하다 하겠다.

本草維新⁹⁾에서는 妊娠嘔吐의 境遇에는 本品에 陳皮, 竹茹, 砂仁 등의 藥物을 配合하여 應用할 수 있으므로 症에 따른 配合도 달리하여 어떠한 嘔吐症이라 하더라도 本品을 利用할 수 있다고 하여 半夏의 使用에 별다른 制限을 두지 않았다. 武²⁰⁾와 王⁴⁵⁾은 大全에서 이르기를 千金方에서는 半夏茯苓湯이나 茯苓丸로 阻病을 治療하였으나 動胎의 性質이 있다고 하여 慎重하게 使用하라 하였으며 張仲景 傷寒論에는 半夏를 使用하지 않아도 많은 效果를 보았다고 하였으나 薛氏는 半夏는 健脾氣 化痰滯의 主藥이라고 하여 脾胃虛弱이나 痰飲停滯로 飲食少思하고 胎不安할 때에는 반드시 茯苓半夏湯에 白朮을 倍加하니 半夏, 白朮, 茯苓, 陳皮, 砂仁으로 하여금 能히 安胎氣하고 健脾胃한 것을 늘 經驗하였다고 한 諸家の 說을 引用하였으며 陳²¹⁾과 孫²³⁾은 薛氏의 說을 引用하여 半夏를 脾胃가 弱하거나 痰飲으로 因한 惡阻症에 使用하였다.

劉¹¹⁾는 半夏가 止嘔의 要藥이나 動胎의 憂慮가 있기에 마구 使用하지 않았으나 半夏가 아니면 止嘔할 수가 없기에 體質이 虛弱한 사람 이외의 一般人은 使用하여 많은 效果를 보았으니 이는 內經의 「有故無殞」理論에 따른 것이라 하였고 林³⁶⁾은 阻病에 있어서 千金方에는 半夏茯苓湯이나 茯苓丸을 使用하였으나 半夏가 動胎가 잘 되기에 보통 白朮散이나 二香散, 竹茹湯이나 人蔘丁香散, 縮砂散을 用하였으나 實은 動胎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醫方一盤珠¹⁵⁾에서도 惡阻를 治療하는데 있어서 半夏를 數次使用하였으나 아직 動胎를 보지 못하였으니 이 모든 것은 有病則病受하고 無病則胎受하기에 그렇다고 하였으며 朴¹⁾은 大全方에는 半夏가 動胎가 된다고 하여 禁用으로 되어 있으나 仲景方에는 半夏를 薑製炒黃하여 使用하였다 하여 古典을 引用하는데 그쳤으나 許⁵⁾는 이를 內經의 有故無殞의 理致에 따라 動胎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傳¹⁷⁾는 胎前病의 治療 原則에 있어서 證을 判別하여 病을 治療하는 것 이외에 胎兒에 無害한 藥을 써야 하는데 不得已할 때에는 有故無殞 亦無殞의 理致에 따라서 使用하라 하였으며 宋⁴⁾도 姑息적으로 古人의 半夏不用論을 意識한 나머지 반드시 使用하여야 할 境遇에도 意識적으로 忌避할 必要는 없다고 思料된다고 하였다.

그리나 黃^{24,30,39,40)} 등은 妊娠期間中の 用藥은 小心하게 해야 되며 胎兒에 損傷을 끼칠 方과 藥은 禁해야 하니 가볍게 生覺하여 投藥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비록 內經에 有故無殞이라 하였어도 慎重하게 使用하여야 하며 病이 어느 정도 好轉이 되면 投藥을 中止하여야 하니 이는 內經의 「大積 大聚라도 其可犯也니 衰其大半而止하여야 하니 過者死也」라 한 것 같은 理致라 할 수 있다.

V. 結 論

半夏를 惡阻症에 使用한 것에 대한 諸文獻을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半夏의 性味는 辛·溫·有毒하므로 惡阻症에 使用할 때에는 薑汁炒하여 使用하여야 한다.
2. 惡阻症의 여러 原因중 脾胃虛弱이나 濕阻痰滯로 因한 境遇에 半夏를 使用하여야 한다.
3. 惡阻症에 半夏를 使用함은 有故無殞 亦無殞이나 慎重하게 使用하며 病이 어느 정도 好轉이 되면 投藥을 中止하여야 한다.

參 考 文 獻

1. 朴炳昆：增補漢方臨床四十年，서울，大光文化社，1981，p. 543.
2. 申天浩：病症診治，서울，成輔社，1990，p. 310.
3. 姜孝信：東醫婦人科學，서울，醫文社，1966，pp. 209~211.
4. 宋炳基：漢方婦人科學，서울，杏林出版，1984，p. 295, 297, 301.
5. 許 凌：東醫寶鑑，서울，南山堂，1980，p. 607.
6. 金賢濟·洪元植：漢醫學辭典，서울，成輔社，1988，p. 522.
7. 李尙仁等：漢藥臨床應用，서울，成輔社，1982，p. 515，pp. 517~518.
8. 申佶求：申氏本草學，서울，壽文社，1982，pp. 698~699.
9. 辛民教：原色本草維新，서울，慶苑文化社，1979，p. 227.
10. 姜明孜：臨床婦產科學，서울，成輔社，1989，pp. 211~217.
11. 劉子剛：婦科病中醫治療法，臺北，文光圖書有限公司，1980，p. 101.
12. 上海何時希：妊娠識要〈何氏歷代醫學叢書〉之二十九，上海，學林出版社，1985，p. 201.
13. 閻純璽：胎產心法，人民衛生出版社，北京，1988，p. 201.
14. 程國彭：醫學心悟，香港，友聯出版社，1961，p. 239.
15. 宋太醫寶材重集 洪金鼎：扁鵲心書·醫方一盤珠合訂本，臺北，新文豐出版有限公司，1976，卷六，p. 62.
16. 王新華：中醫歷代醫論選，江蘇城，江蘇科學技術出版社，1983，p. 811.
17. 傅方珍：〈醫宗金鑑·婦科心法要訣〉釋，河南城，河南科學技術出版社，1981，p. 132.
18. 陸青節：萬病醫學顧問，臺北，大中國圖書公司，1976，p. 63.
19. 張鑿修：中醫治療婦女病，湖北城，湖北科學技術出版社，1986，p. 72.
20. 武之望：濟陰綱目，臺北，旋風出版社，1977，p. 250.
21. 陳子明：校註婦人良方，臺北，旅風出版社，1977，卷十二，p. 13.
22. 龔廷賢：萬病回春，臺北，大中國圖書公司，1968，卷下 p. 100.
23. 孫東宿：赤水玄珠全集，臺北，大聯國風出版社，1978，下冊 p. 968.
24. 黃繩武：傅青主女科評注，湖北城，湖北科學技術出版社，1985，p. 71.
25. 鄧淑娟：婦女五期保健知識，鄧淑娟，廣東城，廣東科學技術出版社，1988，p. 11.

26. 劉長天等：女科臨證經驗集要，廣州市，科學普及出版社，1987，pp.58~59.
27. 吳謙等：醫宗金鑑，臺北，大中國圖書公司，1982，卷三 p.56，pp.55~56.
28. 中醫研究院：中醫症狀鑒別診斷學，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7，pp.361~362.
29. 賈河先等：百病良方，重慶市，科學技術文獻出版社重慶分社，1989，pp.128~129.
30. 成都中醫學院：中醫婦科學講義，香港，醫藥衛生出版社，1982，pp.66~70.
31. 肅損：女科經緯，江蘇城，江蘇科學技術出版社，1988，p.92.
32. 王化員：〈產鑿〉注釋，河南城，河南科學技術出版社，1982，pp.7~9.
33. 安徽中醫學院：中醫臨床手冊，香港，商務印書館，1975，pp.139~140.
34. 上海中醫學院：婦產科學，香港，商務印書館，1976，pp.192~196.
35. 西昌裘：萬氏婦人科，서울，東南出版社，1985，卷一 p.11.
36. 林佩琴：類證治裁，臺北，旋風出版社，1978，p.523.
37. 楊醫亞：中醫學問答 下冊，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5，pp.203~204，pp.210~211.
38. 羅元愷：中醫婦科學，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6，pp.94~96.
39. 張晉峰：針灸治療婦女病，重慶市，科學技術文獻出版社重慶分社，1990，pp.88~89.
40. 楊恒務等：實用中醫婦科方藥學，西安，陝西科學技術出版社，1988，pp.82~87.
41. 王浴生：中藥藥理與應用，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383,387.
42. 北京中醫學院中藥教研室：藥性歌括四百味白話解，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6，pp.40~41.
43. 李仲梓：雷公炮製藥性賦，臺北，大方出版社，1978，p.33.
44. 馬元臺·張隱庵：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臺北，臺聯國風出版社，1977，pp.611~612.
45. 王肯堂：六科準繩，서울，翰成社，1982，pp.340~341.
46. 江蘇新醫學院，中藥大辭典 上冊，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77，p.777.
47. 巢元方：巢氏諸病源候總論，臺中，昭人出版社，卷四十一 p.5.
48. 沈金鰲：中醫婦科學，臺北，五洲出版社，1969，p.40.
49. 傅青主·葉天士：傅青主男女·科葉天士女科，서울，大星文化社，1984，p.111.
50. 沈堯封：沈氏女科輯要，臺北，旋風出版社，1977，p.120.
51. 齊仲甫：女科百問，上海，上海古籍書店印行，1983，下 4.
52. 陳士鐸：婦證錄，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9，p.712.